

‘건설기술개발’이 곧 경쟁력이다



천세운
건설기술신문 편집국장

대한민국의 건설산업이 방향타를 잃어 버리고 휘청거리고 있다. 국민경제 차원의 투자 면에서 GDP의 약 20%, 총 고용면에서 약 10%를 점하고 있는 건설산업이 국내외 경기불황과 맞물려 힘들어지다 보니 나라경제 분위기가 말이 아니다. 더구나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 면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삼성엔지니어링과 GS건설이 대규모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1분기 실적을 발표한 GS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은 각각 5,355억원과 2,18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 회사들의 주가도 곤두박질치고 있다. 대형건설사들이 성장동력으로 삼는 해외건설 수주마저 이렇다보니 건설산업 전체가 힘겨워 보인다. 건설업계가 총체적 난국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 팽배해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나마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등 몇몇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나, 여타 대형사들은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태다 보니 정부나 업계 모두 속이 탈만도 하다.

우리의 건설산업은 그동안 정부의 ‘과잉보호’로, 환경과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체질 개선’을 하지 못한 탓에 현재의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위안하기엔 능력과 직결되는 것 같아 찝찝하기 그지없다.

누차 이야기 했듯이 건설산업은 기술산업이다. 건설산업의 발전은 기술경쟁력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건설산업은 ‘사상누각’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건설산업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배경에는 첫째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정부의 건설산업 정책의 흐름은 기술발전에는 별 관심

“ 건설산업이 이같이 사경을 헤메고 있는데는 건설회사들의 안이함도 한몫을 했다. 시공은 물론 설계 및 엔지니어링, 사업관리 등 고부가가치 부문의 기술로 경쟁력을 키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 기술개발만이 건설사의 흥망을 좌우할 최대의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 결과다.

늦지 않았다. 정부는 ‘싼 것이 비지떡’이라는 속담을 되새겨 합리적인 가격을 보장하고 최고의 기술을 찾아 우대하는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건설업계도 지혜를 모아 저가입찰과 담합 등의 ‘불건전 문화’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 줘야 하며 세계 건설시장이 변화하는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해 시장 선도국으로 발돋움 할 준비를 해야 한다. 기술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당연한 진리를 건설업계 종사자 모두가 가슴 깊이 새겼으면 한다. ”

이 없는 듯 보이며 그저 ‘돈 타령’에 급급했던, 답답함의 연속이었다. 전문인력 양성 등 기술의 중요성을 깨우치려는 의지가 부족했다는 얘기다.

상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가격을 알면서도 값싼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주저없이 상품을 만들라고 강요하기도 한다. 손해를 보는 줄 알면서도 그 상품을 만들 수 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건설업체들이고, 그러다보니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며 위기가 눈앞에 다가왔다. 기술적 바탕도, 잘 만들어야겠다는 의지를 보일 틈도 없이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여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다 보니, 멋대가리 없고 도덕성도 없는 저가입찰과 담합사건이 건설산업을 얼룩지게 하고 말았다. 물론, 국가 예산을 다루면서 가격부분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정부의 고뇌는 이해할 수 있지만 품질차원에서 들여다보면 지나친 ‘돈 타령’은 기술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건설산업이 이같이 사경을 헤메고 있는데는 건

설회사들의 안이함도 한몫을 했다. 시공은 물론 설계 및 엔지니어링, 사업관리 등 고부가가치 부문의 기술로 경쟁력을 키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 기술개발만이 건설사의 흥망을 좌우할 최대의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 결과다.

늦지 않았다. 정부는 ‘싼 것이 비지떡’이라는 속담을 되새겨 합리적인 가격을 보장하고 최고의 기술을 찾아 우대하는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건설업계도 지혜를 모아 저가입찰과 담합 등의 ‘불건전 문화’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 줘야 하며 세계 건설시장이 변화하는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해 시장 선도국으로 발돋움할 준비를 해야 한다. 기술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당연한 진리를 건설업계 종사자 모두가 가슴 깊이 새겼으면 한다. ○